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9, pp.183-191
<https://doi.org/10.29212/mh.2026..139.1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참관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보고

신윤호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연구위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에 4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한다. 국민들의 마음 속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이 반영된 듯 역대 최다수를 기록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 이순신은 임진왜란이라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위인이다.

임진왜란 당시, 그리고 그 직후에는 그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으나 세월이 흘러 평화가 찾아오자 그를 기억하는 일은 잠잠히 이어졌다. 그러다 약 3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순신이 등장해야 할 만큼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또 일본이었다. 일제에 의해 점차 국권을 빼앗기자 지난 역사 속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 부활하였다. 단재 신채호가 ‘조선제일위인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였고, 여러 민족운동가들에 의해 역사서와 소설 등으로 민족의식에 불을 지핀 것이다.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가 왜 ‘광복 80주년 기념’이 되는지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그림 1〉〈우리들의 이순신〉 전시회 플랜카드

지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 도입부에 들어서자 이순신의 재주와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당대 문인·관료들의 글귀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3D입체영상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주어 수군들의 심리적 고독과 위압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전시된 유물은 이순신의 기록과 소장품, 그의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였다. 특히, 이순신 종가에 소장된 이순신의 「일기」, 「장초」 등 각종 고문서가 출품되어 여러 귀중본을 한 자리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여러 인물들에 관한 물품들을 통해서도 이순신의 생활과 고충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처음 이순신에 관한 전시가 개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이라는 명성에 더하여 새로 발굴된 유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번 전시를 보니 이순신과 관계된 유물

중 처음 공개된 것은 없었지만 국내외의 관련 유물을 상당히 많이 모았고, 그것들을 짜임새 있게 전시하여 이순신의 일대기를 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활약했던 임진왜란의 전체 양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발발 전후의 상황으로서 일본 측의 군사배치도 및 침략군 규모를 알려주는 문서가 있으며, 「동래부순절도」·「정왜기공도병」과 같은 전투상황과 전쟁연대기를 그린 기록화,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화포·창검·궁시 등이 총 망라되었다. 또한 전략·전술에 관한 진법도, 명나라로부터 받은 팔사품, 이순신에 관한 문학작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였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순신에 관한 전시가 개막되었지만 이번 만큼 대규모의 유물이 출품된 사례는 없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은 소장 가치가 높다.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곱씹어 볼수록 감동이 배가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순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예전에 봤던 유물이었지만 다시 봐도 가슴에 울림이 느껴졌다. ‘관람’이라기보다 ‘감상’에 가까웠다. 40만여 명의 관람객이 이를 증명하듯 이순신은 우리 마음속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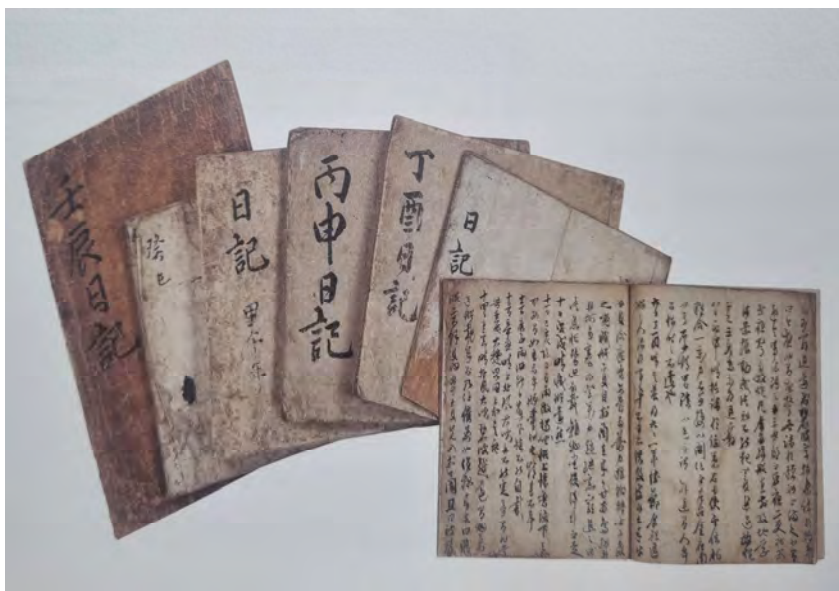
임진왜란 당시에도 민심은 이순신을 향해 있었다. 전란 초기, 일본군의 빠른 진격에 육상의 방어선은 쉽게 무너졌고 침략 20일 만에 수도 한성이 점령당했다. 그런데 의외로 남해안으로부터 승전보가 연이어 올라오자 조정에서도 수군에 큰 기대를 걸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순신의 이름을 들었다. 칠천량 패전으로 조선 수군이 붕괴되었을 때도 이순신이 수군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는 곳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사포가 오셨으니 이제야 우리가 살았다’ 하며 앞다투어 술병을 바치고 피난가려던 백성들이 이순신에게 의탁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군사가 되어 함께 싸

우고 일부는 먹을 것과 물품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명량해전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가 전사했을 때도 백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순신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호남 일도(一道)의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여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국가를 위하는 충성과 몸을 잊고 전사한 의리는 비록 옛날의 어진 장수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 『선조실록』(1598.11.27.) -

이순신에 대한 당대의 민심과 평가를 통해서 그의 인품과 실력을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18세기까지는 그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순신의 ‘일기’와 ‘장계’가 정조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조대에 이르러 이순신 현창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정조는 문(文)과 무(武)를 겸비한 인물로서 이순신을 지목하였고, 숭모하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을 모아 『이충무공전서』를 편찬하였다. 이때에 비로소 이순신이 직접 기록한 「난중일기」와 「장계」가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림 2〉 『년중일기,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이순신종가 기탁)』

이순신의 일기와 장계를 보면, 그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승전보를 올릴 때는 휘하 군사들의 공로를 우선시 하고, 과오를 범했을 때는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책임있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지녔다.

그는 언제나 해전에서 승리하였을 때 왕에게 올리는 장계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하였다. 휘하 장수들부터 말단 노비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름과 역할, 공적 내용까지 기록하였다. 이순신이 가장 신뢰하였던 장수로서 녹도만호 정운을 들 수 있다. 정운은 임진왜란 발발 후 이순신이 첫 출전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출전을 권하며 해전 때마다 선봉에서 싸웠다. 부산포해전에서 철환에 맞아 전사하자 이순신은 “적의 소굴에 돌입하여 종일 교전하여 적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

였는바, 이는 정운의 힘이었습니다”라고 장계에 기록하였으며, 사당에 배향하는 일까지 건의하여 정운을 충신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현재 고흥 쌍충사에 배향되어있다. 이처럼 자신의 전략과 공로보다 부하들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였다.

정운이 전사하자 녹도만호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를 이어간 인물은 낙안군수의 군관 송여종이었다. 이순신은 4차의 출전과정에서 매번 선봉에 있었던 이가 송여종이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실을 장계에 기록하였다. 게다가 그로 하여금 그 승전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왕에게 바치게 하였다. 송여종은 왕을 알현하는 기회를 얻었고 곧 녹도만호로 발탁되는 영예를 누렸다.

비록 농민·노비 등 낮은 신분이라도 이순신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홍양 2선의 방포장 정병 이난춘, 격군 사노 풍파동, 종 대복, 종 금손, 토병 강돌매, 수군 정귀련 …”라고 기록하여 일일이 소속과 이름,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승리의 공로를 나누었다. 당시 노비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업적이 왕에게 상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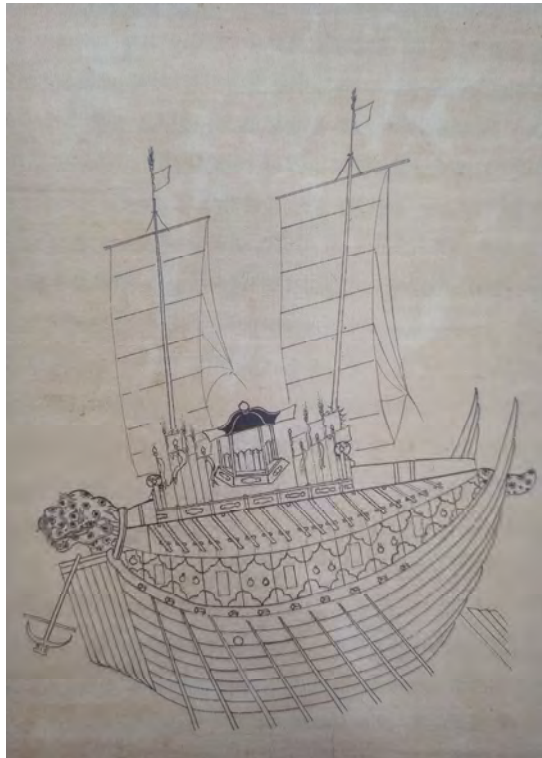
이순신이 군사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격려하는 방법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휘하 군사들을 ‘병력의 규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군사들이 감동할 만한 조치였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높임으로써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순신은 승리의 공은 부하에게 돌렸지만, 과오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1593년 2월, 옹포 앞바다에서 싸우다 배 한 척이 전복되었다. 이순신이 부하들에게 내렸던 지시를 따르지 않으므로 발생하였다. 전투 과정에서 전혀 피해 없이 완전무결한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

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모든 책임이 지휘를 잘 못한 자신에게 있으니 벌을 내려주기를 청하는 장계를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지휘관이라면 충분히 신뢰하고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이순신의 리더십은 시대를 막론하고 귀감이 될 만한 부분이다. 오늘날 한국인이라면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역사 인물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위인으로 존경받고 추앙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부하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공이 자신의 공이 된 셈이다.



〈그림 3〉〈귀선도〉,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이순신종가 기탁)



〈그림 4〉 복원한 귀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홀로 이를 수는 없다. 이순신이 활약하는 내내 그와 함께했던 유능한 장수들과 군관들이 즐비하였다. 앞서 서술하였던 녹도만호 정운이 있으며, 무의공 이순신, 광양현감 어영담, 전라우수사 이억기, 군관 송희립·변존서·변유현 등 많은 인물들의 헌신적 활동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변존서와 변유현은 이순신의 군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이순신의 친인척들이었다. 이순신의 가문은 초계변씨와 여러 대에 걸쳐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변존서는 외종 형제이며, 변유현은 조카(생질)였다. 이들은 무과급제자로서 전술을 논하며 적군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역 기피, 도망자 등을 추포하거나 수군을 점고하는 등 중요한

관리 임무를 수행하였다. 변존서는 이순신의 모친상을 당했던 시기에도 곁에서 수족처럼 보조하였다. 이는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력했음을 보여준다.

이순신과 함께, 또는 그 휘하에서 활동한 많은 장수 및 관료들이 있었지만, 이순신의 그늘에 가려진 부분도 없지 않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수들의 여러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어느 학술대회에서 어떤 후손분이 “우리 할아버지도 큰 업적을 세웠지만 어디를 가도 이순신의 ‘주변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푸념 섞인 발언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순신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순신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따라, 또는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이순신의 업적은 이들과 함께 쌓은 것이다.

이제는 이순신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함께 활동했던 이들까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성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속한 해군사관학교는 충무공의 후예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은 ‘인간 이순신’이다. 왜냐하면, ‘성웅’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은 국민들의 존경 받는 이순신의 위대함을 잘 표현한 성공적인 전시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